

# 대하소설 속 ‘아동’의 서사문법적 역할과 의미\*

한길연\*\*

1. 서론
2. 대하소설 속 ‘아동’의 서사문법적 역할
3. 대하소설 속 ‘아동’의 서사문법적 의미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그간의 대하소설의 인물 연구가 주로 ‘성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하소설 속 ‘아동’에 주목하여 그 ‘서사문법적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동의 존재는 숨겨진 사건을 알려주거나, 갈등의 심연을 드러내주며,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주고, 사건의 진실을 포착하는 등의 국면 전환을 가능케 하는 손쉬운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서사문법 상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

대하소설 속 아동은 그 어수룩함과 호기심 그리고 장난스러움으로 인해 어른들 간의 숨겨진 사건을 폭로하는 ‘정보의 제공자’ 혹은 새로운 사건을 야기하는 ‘사건의 매개자’로, 그 유약함으로 인해 어른들의 갈등의 실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갈등의 상처의 바로미터’로, 그 천진함으로 인해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혹은 어른들 간의 갈등을 일소하는 ‘갈등 해소의 윤희유’로, 그 순수함 혹은 숙성함으로 인해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사건의 본질을 간파하거나 사건 해결의 열쇠를 제공하는 ‘사건 해결사’로 자리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거울’과 같은 존재로, 작품의

\* 이 논문은 경북대학교 2012년 KNU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가장 밑바닥에서 갈등의 참상을 투영하고 사건의 본질을 되비추는 인물군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존재는 왕실의 최상층, 사대부가의 양반층, 시동·시녀 등의 하층을 아우르는 계층상의 다층적 구도와 더불어 노인층, 청장년층 그리고 아동층까지 아우르는 연령상의 다층적 구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대하소설의 총체성을 구현하는 데 일조한다. 또한, 한 개인의 일생을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조명하여 그 성격 형성 및 성장 과정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한 개인의 총체적인 삶의 구현에도 이바지한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대하소설 속 아동은 작품 전체의 서사구조 및 의미론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핵심어: 대하소설, 아동, 서사문법, 갈등, 사건, 총체성

## 1. 서론

고전소설 중 중·단편소설이 특정 주인공을 중심으로 사건 위주의 빠른 서사 전개를 보이는 반면, 대하소설은 ‘인생총서’라고 할 만큼 다양한 인물 군상을 중심으로 삶의 복잡한 양태들을 장면 위주로 섬세하게 담아낸다.<sup>1)</sup> 오늘날의 텔레비전 드라마 중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에 초점을 맞춰 빠른 서사 전개를 보이는 주간특집극(미니시리즈 류)이 고전의 중·단편소설에 가깝다면, 대가족 체제 하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중층적 서사구조 속에서 일상의 모습을 느린 속도로 전개하는 일일드라마, 주말드라마 등은 고전의 대하소설과 유사하다는 논의는<sup>2)</sup> 중·단편소설과

1) 가람 이병기 선생은 『조선어문학명저해제』에서 <완월회맹연>과 같은 대하소설에 대해 “인간행락의 총서”라고 논의한 바 있다.(이병기, 『조선어문학명저해제』, 『문장』 2, 문장사, 1940)  
2) 정병설, 『고소설과 텔레비전드라마의 비교』,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송성욱, 『고전소설과 TV드라마-TV드라마의 한국적 아이콘 창출을 위한 시론』,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 조광국, 『고전대하소설과의 연계성을 통해 본 TV드라마의 서사 전략과 주제-겹사돈 구성을 지닌 <머느리전성시대>와 <황금신부>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가을호 제31권 제3호(통권 11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

대하소설 두 장르 간에 차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들을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중·단편소설과 대하소설 간의 주요한 차이 중 하나로 ‘아동’의 등장 유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중·단편소설에서는 주로 어른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반해, 대하소설에서는 아이들에 관한 내용도 작품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중·단편소설도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보이는 만큼 주인공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비범성을 드러내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으로 대체되며, ‘아동’ 그 자체의 재현에는 그리 충실하지 않다. 반면, 대하소설에서는 ‘아동’의 모습 자체의 재현에 충실한 가운데, 어른들의 세계와는 다른 아이들의 세계를 섬세하게 직조해 낸다. 이는 오늘날의 일일드라마 등에서 어른들에 관한 서사가 주를 이루면서도 아이들에 관한 내용이 드라마의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 양상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그간 대하소설 연구에서 ‘아동’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하소설 속 아동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하소설 속 아동에 대한 연구는 크게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아동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서사문법적 측면’에서 조명하는 연구와, 소설 속 아동의 모습은 조선후기 당대 아동의 모습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생활문화적 측면’에서 조명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 ‘서사문법적 측면’과 관련하여 대하소설 속 아동의 존재 의미를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sup>3)</sup> 대하소설의 인물 연구의 편폭을 넓히고자 한다.<sup>4)</sup>

이를 위해 조선시대 아동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선시대

소설의 현재성-TV드라마와의 비교를 통해서, 『개신어문연구』 31, 개신어문학회, 2010.

- 3) 본고에서는 일단 대하소설 속 아동의 존재를 ‘서사문법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뒤, 차후에 ‘생활문화적 측면’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4) 그간의 아동 관련 문학 연구는 주로 내용 전반이 아동을 소재로 한 순수 아동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마리아 니콜라예바, 『용의 아이들-아동 문학 이론의 새로운 지평』(김서경 옮김), 문학과학지성사, 1998; 마리아 니콜라예바,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조희숙 외 옮김), 교문사, 2009; 신현재 외, 『아동문학의 이해』, 박이정, 2009;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아동의 발견, 그 이후의 문학』, 소명출판, 2009) 본고에서는 이와 달리 어른들에 관한 문학 작품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의 존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명칭은 영해(嬰孩), 영아(嬰兒), 소아(小兒), 유자(孺子), 초흔(髫鬣), 동자(童子), 동관(童叟), 성동(成童) 등으로 다양하였다.<sup>5)</sup> 그런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공식자료에서는 ‘아(兒)’, ‘동(童)’, ‘아동(兒童)’ 등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기에 이들 용어는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아동’이란 용어로 통칭할 수 있다고 논의된 바 있다.<sup>6)</sup> 본고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따라 조선시대 아이들을 ‘아동’이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조선시대 아동에 대한 상한선을 살펴보면, 『소학』 등에서 『예기』 「내칙(內則)」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관례(冠禮)는 20세, 혼인은 30세로 정하여 아동의 상한선을 높게 잡고 있으나,<sup>7)</sup> 조선시대의 실상은 이와는 다를 수 있다. 그간의 논의에서는 주로 관례를 치르기 전인 20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았지만,<sup>8)</sup> 최근의 논의들을 참조하면, 16세 이상부터 호패를 착용하고, 성인으로서의 의무인 역(役)도 16세부터 담당하며, 혼인하거나 출사(出仕)할 수 있는 나이도 15세 이상이고, 형법상으로도 16세 이상부터 성인과 같은 법적용을 받았기에, 법적·제도적으로 조선시대 아동은 15세까지로 한정된다고 검토하였다.<sup>9)</sup> 이처럼 조선시대 아동은 20세 미만이며, 엄격하게 말하면 15세까지로 한정된다.

또한, 조선시대 아동은 시기별로 교육방법도 달랐다. 특히 10세가 되면 이전과는 달리 놀이는 금지된 채 공부에 전념하게 하면서, 집안일이나 종을 감독하게 하고, 사교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의 어른과 흡

5) 아동에 관한 명칭은 나이에 따라 달랐다. 일례로 『의림촬요(醫林撮要)』에서는 1~6세를 영아(嬰兒), 7~8세를 촌(鬣), 10세를 초(髫), 11~14세를 동관(童叟)이라고 불렀고(『의림촬요』 12권, 「소아문(小兒門)」 상(上)(양혜수, 『한국의학대계 10(의림촬요 3)』(김신근 주편), 여강출판사, 1978, 282~283면 참조),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는 갓난아기를 영아(嬰兒), 3세를 소아(小兒), 10세를 동자(童子), 15세를 성동(成童), 16세를 정(丁), 20세를 약관(弱冠)으로, 혹은 1~5세를 영해(嬰孩), 7세 이하를 유자(孺子), 10세 이하를 초흔(髫鬣), 14세 이하를 동관(童叟)이라 불렀다.(이수광, 『지봉유설정선』(정해림 역주, 현대실학사, 311~312면 참조)

6) 박미선, 『조선전기 ‘아동’의 사회적 인식-아동범죄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5, 1면.

7) “스무 살이 되면 관례(冠禮)를 치르고 비로소 성인의 예를 배운다. (...) 서른 살이 되면 아내를 맞이하여 가정을 꾸미고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소학』 「입교(立教)」(주희·유청지, 『소학』(개정판, 윤호창 옮김, 홍익출판사, 2005, 30~31면)

8) 류점숙,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중·문, 1998, 24면.

9) 박미선, 앞의 논문, 3~13면; 최해진, 『조선중기 사족의 아동에 대한 인식과 교육-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眉巖日記)』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2008, 16~18면 참조.

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변화를 보인다. 즉 10세 전후한 시기부터는 거의 ‘준성인’으로서 더 이상 어린이와 같은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다.<sup>10)</sup> 물론 『양아록(養兒錄)』 등에서 드러나듯이 아이들이 매우 어렸을 때는 천진한 모습 그대로를 어른들이 기특해하기에 오늘날처럼 그 천진스러움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sup>11)</sup> 그러나 일정 정도의 나이가 지나면 아동의 천진한 모습보다는 예비어른으로서의 숙성한 모습에 훨씬 더 의미를 부여하며 거의 어른과 같은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조선시대 아동의 모습은 오늘날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면서 대하소설의 아동은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어떠한 서사문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 대하소설의 인물 연구가 주로 ‘성인’ 캐릭터 위주로 전개되었기에 ‘아동’ 캐릭터에 대한 연구는 대하소설의 인물 연구의 균형을 이루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대하소설의 양식적 특징을 선명하게 고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하소설 중 아동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소현성록>, <쌍천기봉>, <창란호연록>, <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 <임화정연>, <쌍성봉효록>, <조씨삼대록>, <임씨삼대록>, <성현공숙열기>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sup>12)</sup>

10) 최혜진, 앞의 논문; 백혜리, 『묵재일기(默齋日記)에 나타난 조선 중기 아동의 생활』, 『유아교육연구』 24권 제 5호, 2004; 최기숙, 『조선시대 어린이 인문학-조선 지식인이 그린 어린이 문화지도』, 열린어린이, 2013 참조.

11) 이문건(李文楸)의 육아일지인 『양아록』에서는 손자인 이숙길(李淑吉)이 태어난 순간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일들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의 이숙길의 천진스러운 모습에 대해서는 이를 바라보는 이문건 자신이 온갖 근심을 잊는다고 할 만큼 이를 긍정하면서 찬미하는 태도를 보인다.(이문건, 『묵재일기』(이상주 역주), 태학사, 1997 참조)

12) <소현성록>은 이화여대본 15권 15책, <쌍천기봉>은 장서각본 18권 18책(문화재관리국장서각 귀중본총서 『쌍천기봉』 상·중·하, 문화재관리국장서각사무소, 1978), <창란호연록>은 국립중앙도서관본 13권 13책(『필사본고소설전집』 9·10(김기동 편), 아세아문화사, 1980), <옥원재합기연>은 규장각본 21권 21책(『필사본고전소설전집』 27~30(김기동 편), 아세아문화사, 1980), <완월회맹연>은 규장각본 180권 93책(『완월회맹연』 1~12(김진세 독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1995), <임화정연>은 구활자본 6권 6책(활자본고소설전집 8·9 『임화정연』 상·하, 아세아문화사, 1976), <쌍성봉효록>은 국립중앙도서관본 16권 16책, <조씨삼대록>은 서강대본 40권 40책, <임씨삼대록>은 장서각본 40권 40책, <성현공숙열기>는 규장각본 25권 25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대하소설 속 '아동'의 서사문법적 역할

대하소설 속 아동의 모습을 보면,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15세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sup>13)</sup> 그리고 그 기질과 교육 정도에 따라 친진한 아이, 어수룩한 아이, 호기심 많은 아이, 능청스런 아이, 어른스러운 아이 등 다양한 성향의 아이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대하소설의 다양한 사건들 속에 배치되어 사건을 더욱 극적으로 구조화 낸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사건의 폭로와 매개

대하소설에서 아이들은 남다른 호기심과 솔직함 그리고 장난스러움으로 인해 숨겨진 사건을 알려주거나 새로운 사건을 매개한다.

□ 먼저 숨겨진 사건을 폭로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주로 부부간의 동침 여부와 관련한 앵혈(驚血)의 유무를 아이들이 알아채고 이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장면으로 나타난다. 여러 작품에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한 예로 <임씨삼대록>의 임연교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연교 낭언이 우어 왈 “쇼의 제숙 모녀를 다 보니 규슈 뱃시 흥이는 비홍이 란 거시 잇고 쇼의의게는 잇스되 관쓰고 빈혀 쏘즌 숙모니는 비홍 업는 양을 보왔더니 청눈각 주숙모는 비홍이 잇스니 귀 어언 일어니잇가” 티부인이 경문 왈 “네 언제 보왔는다” 연교 디왈 “모일의 우언이 시녀를 쓰라 노다가 청눈각의 가니 숙피 업고 셔안 우히 미실과 청니를 만히 노했거늘 가지고즈 흥되 숙피 업스니 츠즈 주쇼셔 흥려 흥여 협실을 여러 보니 숙피 협실의셔 목욕 흥시는지라 옷술 버셔 계시거늘 즈시 보았느이다” 쇼의의 말이난 어언이 낭

13) 대하소설에서 주요인물들이 거의 15세 전후로 혼인을 하기에, 대하소설에서도 문헌자료와 마찬가지로 15세 정도까지를 아동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냥하고 츠세 잇는지라 터부인이 경으혀여 침음묵묵하니 풍부인이 웃고 주왈 “쇼으의 말을 엇지 축신희리잇가 첩이 시험혀여 둔견의셔 덜부의 비상을 상고혀여 진적혀를 아스이다” 설파의 주시의 옥슈를 잡고 선메를 혼 번 거드치미 과연 잉도 일미 찬연흔지라 주쇼계 난연슈괴혀를 니긔지 못혀여 옥안의 흥광이 무루눅고 성안이 느죽혀여 진슈를 숙이느니라 풍부인이 냥쇼 왈 “늬셔 경질이 근긔의 던일을 늬웃쳐 주시를 둥디혀다 헤더뇨 오히려 냥익이 미진혀여 금슬이 불합혀닷다”(〈임씨삼대록〉 35권, 22~24면)

임연교는 어느 날 집안의 여자 어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규수는 앵혈이 있지만 결혼한 여자는 앵혈이 없는데 주숙모가 앵혈이 있으니 이상하다고 말한다. 어른들이 놀라 정말 앵혈을 보았는지를 묻자, 임연교는 주숙모 처소에 과일을 얻어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협실에서 묵욕하는 주숙모를 보았는데 이때 앵혈이 있는 것을 자세히 목도했다고 말한다. 이에 풍부인이 직접 주씨의 팔을 걷어 앵혈이 있음을 확인하고는 주씨와 임경홍의 부부 사이를 걱정하게 된다. 부부간의 불화 등의 숨겨진 내막을 들추어내는 역할로는 주인공의 숙부나 서모 등의 익살스런 양반군도 한몫을 하는데,<sup>14)</sup> 이와 더불어 천진스러운 아이들도 일정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앵혈의 유무 외에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줌으로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례로 <쌍천기봉>의 이몽창 형제는 모친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부친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이를 외조부모에게 알려준다.

덩공이 두 공즈를 츠즈 보매 더욱 슬허 눈물이 속절업시 스매 젓터라 드디여 냥공즈를 드려 본부 의 니르러 부인을 뵈니 부인이 이 으를 붓들고 실성뉴테히니 몽창이 춤디 못혀야 닐오더 “조모는 모친이 죽었는가 슬허 마르쇼셔 부친이 양” 경태슈기 맛더 두어시니 경태슈 도라오며 모친도 도라오리라 헤더이다” 덩공과 부인이 대경 왈 “이 말이 어더로서 낫는뇨” 몽현이 디왈 “작

14)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일 쇼즈 등이 모친을 심각고 슬허하니 부친이 니르시니이다.” 공이 틈을 반향의 씨드라 닐오더 “즈슈[이관성] 본디 정대허거니와 연이나 여으 향훈 정이 묵〃 훈 가온더 둥훈디라 그 몸이 풍진 가운데 거쳐 모락물 드롤던대 엇디 측은터 아니리오마는 스기 십븐 혼연하니 너 고이히 너겼더니 원력 경혁의 곳의 감초와 두엇도다 경혁이 과만이 찾시니 도령이 슈이 초천홀 거시니 여의 수이 모드리라” 부인과 사랑 등이 혼열흐를 이기디 못허더니 경공이 일계를 심각고 몽현을 당부허디 “네 어미 양〃 의 이시를 우리드려 닐넛노라 네 아버지러 니르디 말나 네 아버 크게 어려오니 만일 알던디 너히게 큰 죄책이 도라가리라”(〈쌍천기봉〉 4권, 『쌍천기봉』 상:464~465면)

이몽창 형제의 모친 정몽홍이 악인의 모해로 인해 출부(黜婦)가 되어 친정에 돌아갔다가 도적에게 납치되어 생사를 모르는 상황에 처하자, 정공 부부는 자신의 딸 정몽홍을 생각하며 슬피하다가 어느 날 외손자인 이몽창 형제를 대면하고는 실성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서러워한다. 이에 어린 이몽창 형제는 부친 이관성이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외조부모에게 직고한다. 모친이 도적에게 납치되어 죽은 것이 아니라 부친이 경태수에게 부탁하여 모친을 잘 보호하도록 미리 조치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외조부모를 위로하는 것이다. 이에 정공 부부는 사위가 딸이 안전하도록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던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을 꽤 씁하게 여겨 장차 사위를 놀려줄 계책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몽창 형제에게 자신들이 정몽홍의 생존 여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관성에게 함묵하라고 당부한다.

이후, 정공 부부는 딸이 무사히 친정에 돌아왔을 때 사위인 이관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딸의 생존 여부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사위를 한 번 애태우기 위해서이다. 다만 이몽창 형제만은 데려와 모자간에 상봉하도록 해 준다. 이관성은 부인 정몽홍을 경태수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부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노심초사하며 애를 태운다. 이때 이를 보다 못한 이몽창 형제는 모친이 처가에 무사히 돌아와 있

다는 사실을 부친에게 알려준다.

이처럼,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보다도 사실에 접근할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를 손쉽게 알려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② 한편, 아이들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건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어수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과정에서 사건을 매개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사건을 매개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을 한 번 놀려보려는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사건을 매개하기도 한다.

먼저, 아이들이 어수룩하기 때문에 사건을 매개하는 경우는 여러 작품에서 나오는데, 그 한 예로 <조씨삼대록>에서 9살인 조계현이 양인광에게 속아 양인광의 연서(戀書)를 자신의 사촌누이인 조월염에게 가져다주는 대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양성[양인광]이 조시[조월염]를 스모흐는 정이 날노 겁고 시로 더흐나 평진왕[조월염의 부친]의 뜻이 견확호여 조흔 소식을 듣지 못흐는 고로 초공[조월염의 숙부, 양인광의 스승]이 가마니 왕을 개유홀지언정 양성 듣는 더는 혼인 말을 일크르미 업스니 (...) 흐 셔간을 지어 가지고 조부의 와 이셔 여러 조성 등과 말흐다가 내당의 드러가 양덩렬[양인광의 누이, 초공의 부인]을 보고 즈염[양인광의 조카딸, 초공의 딸]의 기화 명월 궂트물 보미 완연이 조시의 옥안 미모를 더흠 궂튼지라 마음의 더욱 창연호여 그 셔간을 전흐리룰 못 어더 흐 더니 진왕[평진왕, 조월염의 부친]의 필즈 계현의 년이 구 세라 양병뵈[양인광] 계현을 보고 그짓 속여 일 봉셔를 쥬며 왈 “내 앓가 옥미정의 드러가니 맛 초아 질미 이 셔간을 봉호여 진궁의 보내고져 허거늘 그 봉피의 글시를 스랑 호여 부절업시 가지고 느오니 질네 니르대 선월덩 저저귀 전홀 거시니 갔다가 계현을 쥬어 네 미즈귀 전흐라 흐미 내 맛타온 거시라 너를 쥬느니 다르니 쥬지 말고 네 선월덩 미제를 쥬라” 계현이 본더 나히 어릴 썬 아니라 횡시 잠간 암연호여 남의 말을 잘 궂지 듯고 두루쳐 심각지 못흐는지라 바히 무심코 봉

셔를 바다 스미의 노코 같오디 “미즈 등이 묘석으로 상중하며 또 어내 스이 셔찰 왕복이 이시리오 너 미저의 시네 아니니 이 시간 전하라 단일 니 업도쇼 이다” 병뷔 왈 “무슴 힘들 일이완디 그만 청을 듯지 아니호는다” 계현이 마지 못하여 웃고 니러느니 원내 진궁과 상뷔 스이 쓴 고로 규슈의 왕티 비편하여 혹 모히지 못호는 날은 셔찰노 셔로 왕복호미 잇는지라 저 호의 업슨 계현이 무심이 바다 스미의 너흔지라 병뷔 웃고 곶오디 “질네 당부하여 일치 말고 너 를 쥬어 선월당의 전하라 호더라” 계현이 응낙고 진궁으로 가더니(<조씨삼대 록> 14권, 82~86면)

위의 대목은 양인광이 자신의 조카딸 조자염이 조자염의 사촌언니인 조월염에게 보내는 편지인양 가장해서 자신의 연서를 조월염에게 가져다주도록 조계현을 속이는 부분이다. 이미 양인광은 조월염을 우연한 기회에 한번 보고는 사모하는 마음을 견잡을 수 없어 야밤에 조월염의 침소에 돌입해서는 조월염의 손을 잡는 등의 행실로 한 바탕 소동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러나 조월염의 부친 진왕은 양인광이 무뢰한인 양세의 아들인 것을 꺼리고 그 호방함을 경계하여 양인광과의 혼사에 관해 함구하게 된다.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사모하는 마음만 깊어져 어쩔 줄 모르던 양인광은 연서를 써서 이를 조월염에게 전달하고자 하나 협실에 숨어있었다시피 하는 조월염에게 전달해 줄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 조월염의 숙모이자 자신의 누이인 양정렬의 처소에서 누이와 조카딸을 보고는 조월염을 떠올리면서 더욱 더 마음이 다급하여 편지를 전해줄 사람을 찾고 있던 중, 마침 진왕의 막내 아들인 조계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는 자신의 조카딸 조자염의 편지인양 가장하여 조월염에게 자신의 편지를 보낼 공리를 하게 된다.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조계현은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사이에 무슨 편지를 또 전하며 자신이 누이의 시녀가 아니니 편지를 전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간혹 진궁과 초공의 처소인 상부 사이가 꽤 멀어 규수들 사이에 시녀를 통해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양인광의 연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편지가 진왕에게 발각된 후 조계현은 비례의 편지를 누이에

게 전해줬다는 이유로 부친인 진왕에게 큰 매를 맞게 된다. 이후 조씨 집안에서는 앞서 양인광이 조월염의 침소에 돌입한 사건에다 이 편지 사건까지 더해지자 어쩔 수 없이 조월염을 양인광에게 시집보내게 된다. 이처럼, 어리숙한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이용당하는 가운데 본인도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사건을 매개하게 된다.

다음으로, 호기심이 발동하여 새로운 사건을 매개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임화정연>의 정연경의 경우에는 자신의 누이인 정연양과 자신이 글을 배우는 임규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임처사 및 그의 아들 임규에게 수학하던 정연경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이 그간 배운 것을 누이 정연양 앞에서 자랑하던 끝에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준 임규에 대한 말을 꺼낸다. 임규가 매우 빼어난 인물이지만 추남이라면서 임규의 글을 정연양 앞에 보여주자, 정연양은 그 글이 빼어남에 놀라면서 남자의 얼굴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연경에게 임규를 따라 열심히 배우라고 충고한다.

이후, 정연경은 임규에게 자신의 누이가 지은 시를 몰래 가져다가 보여준다.

(정연양이) 삼시간에 옥연찬 칠언사를 지어 나작이 음영하니 공자[정연경]는 어림으로 그 글의 의미를 아지 못하되 그 붓두름이 신속하고 필체가 주옥 갖음을 보고 크게 칭찬하야 가만이 생각하되 ‘림형[임규]의 재조 | 심히 신속하더니 저 〳의 슈단이 〳릿쫘 고풍하니 내 맞당히 저 글을 가져다가 림형을 쥬어 길임을 보리라 그러하나 저저 | 필경 쥬지 아니할 것이니 내 가만히 가져가리라’ 하고 계책을 생각하더니 문득 안으로서 시비 나아와 고왈 “로아와 부인이 소저[정연양]를 부르시더이다” 하니 소제 황망히 이러 드러갈새 옥연시를 경대에 늦코 이러나며 공자다려 한가지 가자 하니 공자 | 대왈 “소제 지금 말이 저리오니 잠간 진정하야 가리이다” 소제 신지무의하고 내당에 이르니 (….) 공자 | 저 〳의 문져감을 보고 즉시 글을 소매에 늦코 (….) 공자 | 소매 안으로서 옥연시를 내어 텃연히 생[임규]을 쥬며 왈 “이 글이 엇더하뇨 형은 보라” 생이 (….) 칭찬하야 왈 “묘하고 아람답도다 옛날 소약난의 해문과 사

도은의 영설시를 일즉 일카랏스나 엇지 이 옥연찬에 지남이 잇스리요 아지 못  
 게라 네 이러한 글을 어대로 좃차 어덧는다” 공자 | 나희 어림에 저”의 글을  
 길임에 조희 녀여 즉시 답왈(…) “이 글의 지은 곡절이 잇나니 오날 우리 숙  
 모 주부인이 옥연 한 쌍을 우리 저”게 보내 주시니 가위 턴하의 보배이라 그  
 찬사를 지으라 권하매 저” | 가치 아니타 하더니 여차” ” 하고 지엿기로  
 형을 보이고저 할새 저”의 꾸증을 입을가 하여 내 또한 이리” ” 하고 가져  
 옵니다”(…) 생이 그 글을 옮겨 벗기고 공자를 주더라 일로조차 립생이 정  
 소저의 문장을 짐작하고 칭찬하며 생이 또한 일슈시를 지여 그 곁에 쓰고(…)   
 가마니 내심에 해오되 ‘이 녀자 | 이러듯 아람다우니 내 구하야 배필을 삼으  
 면 진실로 남자의 췌사이로다’ 생각함이 ”에 이르다가 문득 뉘웃쳐 왈 “나는  
 외간남자이요 저는 규중녀자이라 엇지 남의집 규슈를 유의하리요” 인하여 그  
 시를 연갑에 간슈하고 다시 유렴치 아니하나 매양 글을 내어보면 문득 흠선함  
 을 마지 하니하더라 (<임화정연> 1권, 『임화정연』 상:13~15면)

정연경은 자신의 누이 정연양이 옥연시를 순식간에 지을 뿐 아니라 필체  
 가 주옥같음에 남에게 보여주어 칭찬받을 생각으로, 발이 저리다는 핑계를  
 대고 홀로 누이방에 남아 몰래 누이의 시를 가져다가 임규에게 보여준다.  
 임규는 글이 매우 뛰어나지만 아녀자의 필적임을 짐작하고 글의 출처를 묻  
 는다. 정연경은 글이 뛰어나다고 기쁨을 받는 것에 신이 나, 이는 자신의  
 누이가 지은 것이라 하면서 자신이 이를 몰래 가져온 사연을 일일이 알려  
 준다. 임규는 그 글을 읊기고 그 곁에 시 한 수를 지어 간직하면서 정연양  
 이 자신의 배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비록 규중처녀를 마음  
 에 두는 것을 뉘우치면서 그 글을 연갑에 넣어두지만, 그럼에도 늘 글을 내  
 어보면서 흠탄하기를 마지않는다.

정연경은 누이의 글이 뛰어나다고 칭찬받는 것에 신이 나 자신의 사부이  
 자 임규의 부친인 임처사에게도 그 글을 보여준다. 임처사도 정연양의 빼어  
 남을 감탄하게 되며, 이후 임규와 정연양은 부친끼리의 주선 아래 약혼하게  
 된다. 정연경은 정연양과 임규 사이를 오가면서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호기심 어린 행동

으로 인해 주요인물 간의 인연이 맺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남을 골탕 먹이려는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새로운 사건을 매개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씨삼대록>에서 양인광이 조월염을 지극히 사모하여 혼인했지만 둘째 부인 광씨의 계략에 빠져 조월염을 냉옥에 가두는 등 온갖 박대를 하고 조월염의 처소에 불이 나 혼적조차 없는데도 조월염이 간부와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다가, 이후 진실이 밝혀진 뒤에는 조월염의 생사를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조월염을 오매불망 그리워하게 된다. 이때 조월염은 간신히 몸을 피해 친가로 돌아와 있었는데 조씨 집안에서는 액을 다 때울 때까지 조월염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양인광에게 알리지 않기로 한 터였다. 어느 날 우연히 조월염이 처가에 있는 꿈을 꾸 양인광은 조월염이 죽어서 꿈에 나타난 것은 아닌가 안타까워하면서 처가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이때 양인광은 능청스러운 아이인 조명운에게 속아 조월염을 귀신인 줄 알고 애처로워하면서 조월염에게 사과를 극진히 하는 등 한 바탕의 헤프닝을 벌이게 된다.

      초일 파도 후 본부의 단녀 또 조가의 오니 제조 등이 존당의 드러가고 명현 등 쇼으들만 잇거늘 병취[양인광] 중청의 빗거리 시스를 읊더니 의시 부운의 훗터져 초조호더니 명운이 쇼왈 “숙부 무스 일노 탄식이 쫓지 아니호시느니 잇고 쇼질이 드러 혹 숙부귀 유익홀 동 아느니잇고” 병취 쇼왈 “내 심우는 타시 아니라 네 숙모의 스싱 거처를 모르오미라 네는 드렸느냐” 명운이 더왈 “일퉁지상의 숙부 모르시는 거슬 쇼질이 엇지 알니잇고” 태스의 츠즈 명선이 본더 언경호지라 웃고 곱오더 “숙부 쇼질의 청을 드러 구호는 거슬 주시면 숙모의 거처를 알외리이다” 명운이 정식 찰시 왈 “요망호 아히 숙부를 속이려 허언을 호느뇨 숙부는 아히 희롱을 치죄호쇼셔 연이나 요스이 우리 집 고이호 변이 이셔 존당이 근심호시느니 숙부 말씀으로 찌치오니 더욱 참연호지라 반드시 숙모 원혼이 그러호신가 요스니 선월당의 가면 숙모 형용이 완전호여 실중의셔 계시오로 언답이 즈약하다가 인적 곳 이시면 어디를 치여가기를 무상이 호느지라 유명이 상격호나 유혼이 왕리호는가 호느니 숙부 호씨는 드러가 유혼이나 위로호쇼셔 빅쥬의도 현성호느니이다” 양성이 드르미 몽스로 상합

하는지라(…) 아히 쇼기는 말이 의스 밧기 이언하고 명천은 단좌하고 명선은 형의 눈치를 알고 우음을 먹음고 말을 아니하니 성이 혹 비도하여 심각하디 후자 조시 스중 구성으로 만일을 바릇더니 이 말이 진격홀진디 죽으미 적실흔 지라(…) 명운다려 닐오디 “네 니 앓홀 인도하라” 하고 지촉하니 명운이 부속의 명은 어그미 업스디 속여 웃고져 하여 머리를 흔드려 굴오디 “쇼질은 어린 으히 흥번 숙모를 본 후 성인과 달나 무셔온 마음이 나는지라 다시 드러가기는 두렵고 무셔오니 숙뵈 선월덩 길홀 아라시느니 드러가 보쇼셔” 츠시 일식이 셔령의 도라지고 숙뵈 투립하는지라 양심의 마음이 착급하니 명운의 인도를 청치 아니하고 가연이 몸을 니려 선월덩의 올라 쇼져 잇던 침방 난간의 올느셔니 (<조씨삼대록> 21권, 26~30면)

양인광이 조월염에 대한 생각으로 탄식을 그치지 않자, 조명윤은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본다. 이에 양인광은 조명윤에게 조월염의 생사와 거처를 혹시 아는 줄 묻는다. 이때 나이 어린 조명선이 사실대로 대답해 주려는 것을 조명윤은 얼른 제지하면서 요즘 선월정에 고모 조월염의 모습이 밤에는 물론 한낮에도 보이다가도 사람이 오면 갑자기 사라지는데 이는 고모의 원혼임에 틀림없으니 고모부인 양인광이 그 원혼을 달래주라면서 양인광을 속인다. 양인광이 자신의 꿈속의 일과 흡사하기에 조명윤의 말대로 조월염이 죽었는가 생각하면서 조명윤에게 선월정으로 인도하라고 하지만 조명윤은 무섭다 하면서 자리를 피하고 양인광만이 그곳에 홀로 이르게 된다. 선월정에 이른 양인광은 조월염의 말소리가 들리기에 더욱 마음이 다급하여 바삐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살아 있는 조월염을 귀신으로 여겨 그간의 자신의 죄를 극진히 사죄하는 등 온갖 가관을 벌인다. 그리하여 “용넬흔 인식 아히 희롱 중 빠져 선월덩의 귀신 잇든 말을 고지듯고 드러와 쇼미(小妹) 싱존(生存)하여시면 안치(眼彩)의 구슬이 업지 아니려든 옥음(玉音)을 분변치 못하여 귀신이라 하고 붓들고 날치는 거동이 절도(絶倒)치 아니하리오”<sup>15)</sup>라고 놀림을 당하면서 조씨 가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조명윤에게 속은 양인광이 살아 있는 조월염을 죽은 사람인

15) <조씨삼대록> 21권, 38면.

줄 착각하고는 극진히 사죄하는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펼쳐지는 것이다.

요컨대, 아이들은 호기심 많고 장난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자신이 얻은 정보를 쉽게 누설함으로써 ‘정보의 제공자’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어수룩하게 남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새로운 일을 만들기 좋아하고 남을 놀리려는 성향이 강하기에 ‘사건의 매개자’로서 기능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건을 발생시키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2) 갈등의 상처의 바로미터

대하소설에서 아동은 새로운 사건을 촉매하는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가문 내에서 가장 유약한 구성원인 아이들은 어른들 간의 갈등 상황에서 아무런 방비 없이 노출된 채 극심한 피해를 입는 존재로 등장함으로써, ‘갈등의 상처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모친 혹은 부친의 부재 상황 속에서 혹은 모친과 부친의 갈등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해해질 뿐만 아니라, 부모를 해치려는 악인이 아이들까지 해치려 함으로써 혹은 자신의 부모가 악인이기에 극도로 고뇌하며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만큼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존재는 특정 사건으로 인한 균열과 상처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하는 기제로서 작동하게 된다.

㉠ 먼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통해 갈등의 심연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하소설 곳곳에서 가문 내·외적 갈등으로 인한 부모의 부재 상황 혹은 부모 당사자 간의 불화 국면 속에서 아이들은 존재 기반이 흔들릴 만큼 큰 상처를 입는다. 이를 통해 특정 사건으로 인한 상처의 실상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완월회맹연>의 정몽창의 경우에는 모친 이자염이 계조모(繼祖母)인 소교원의 모해로 인해 출거당한 뒤 모친을 그리워하는 고통을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지[정몽창] 후함의서 은학의 무리 원님으로조츠 방공의 셋도라 후계의 나리를 잠착하여 보더니 거리히는 그온디 그 샷기 짓출 조츠 날개 스이의 빠이를 보고 홀연 함전의서 업디여 늦기며 우리 곶오디 “저 학즈는 엇디 상니히는 근심이 업셔 저 즐거오몰 어덧노뇨” 인히여 님 그온디 즈모를 불너 곳치디 아니히니 읍읍히 호호히는 정을 니기디 못히는 거동이 어미롤 아조 여희여 유명을 격히미라도 이에 더오디 아닐디라(<완월회맹연> 95권, 『완월회맹연』 7:112면)

이 부분은 찢먹이 어린아이인 정몽창이 그 모친을 그리워하다가 학의 새끼들이 어미의 날개 사이로 파고드는 모습을 보고는 서로 이별할 일 없는 학을 부러워하면서 마치 모친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슬퍼하며 목 놓아 우는 대목이다. 어른들 간의 갈등의 결과는 결국 정몽창에게 모친의 부재라는 현실로 돌아오며, 이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던 정몽창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쌍천기봉>의 이몽창의 경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모친과 이별하게 됨으로써 모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부친마저도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 상처받고 황폐해진 어린아이의 모습이 섬세하게 재현되어 있다. 이몽창의 모친 정몽홍이 도적에게 납치되어 생사를 모르는 상황에 처하자, 2살인 이몽창은 의지했던 모친을 잃은 뒤 아무에게도 가지 않고 부친만 졸졸 따라다닌다. 부친 이관성이 2살의 어린아이가 모친을 잃고 자신에게만 매달리는 것을 애처로워하여 먹고 자는 것을 손수 돌봐주며 어머니노릇을 하자, 어느 덧 이몽창은 모친의 존재를 잊고 부친에게만 의지해서 지내고 부친이 입번(入番)할 때는 삼촌인 이연성(8세)만을 쫓아다닌다. 그런데 이몽창이 3세가 되었을 때 부친인 이관성마저 여환 일당의 술책에 휘말려 남경으로 떠나게 되자, 이몽창은 부친 이관성의 옷을 잡고 놓지 않으며 통곡한다. 부친마저 떠나버린 뒤 이몽창은 시녀의 눈을 화살로 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악동으로 변모한다.

이적의 니부의서 몽창이 야〃를 썬 후 훈낫 괴물이 되야 아모의게도 아 니 가고 듀야 연성을 붓들고 보치니 연성이 역시 글을 폐하고 밤낫 몽창을 안 으며 업으며 든니〃 옷등이 문져 찌러지더라 몽창이 연성의 가치하믈 미더 든 득 버러시 사오나와 만일 뜻긔디 아닌 일이 이실딘대 서동 등학 소년을 등히 치논디라 연성이 7러쳐 왈 “종을 칠 만하면 업슈이 너기느니 활로 그 눈을 보미 상척이라” 하니 몽창이 크게 깃거 즉시 활을 민그러 가니 비복 등 피오 니 이신죽 뵈더니 일〃은 아춤 식상을 소연이 가져 니러니 몽창이 보고 노왈 “어이 그러시 글호뇨” 소연이 거긔 노왈 “스 세 희이 저만 자시디 더 즈실가” 하니 몽창이 대로하야 눈을 브릅 쓰고 활노 그 눈을 쏘니 소연의 눈이 멀게 되였논디라 한님과 공지 대쇼하고 꾸짓디 아니하니 몽창이 더욱 방즈하야 승〃 하더라 (<쌍천기봉> 3권, 『쌍천기봉』 상:423~424면)

위의 대목은 이몽창이 모친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부친만을 의지해 지 내다가 부친마저 떠나버린 뒤 “훈낫 괴물”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 어린 삼촌 이연성의 말만 듣고 시녀의 눈을 쏘아버리는 이몽창의 모습에는 부모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한 채, 내면의 상처가 공격적인 성향으로 표출되는 실상이 잘 드러나 있다.

물론, 이몽창이 시녀의 눈을 쏘는 것에는 단순히 악동의 모습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아이들도 상하의 존비(尊卑)를 분별해야만 했던 정황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 『미암일기(眉巖日記)』에서 어린아이인 유광선(柳光先)·유광연(柳光延) 등이 밥을 먹고 있을 때 계집종이 코를 풀자 화를 내면서 밥그릇을 내던지고 계집종을 호되게 꾸짖거나 계집종이 거짓말할 때 매질하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인 유희춘(柳希春)이 손자들이 존비를 분별할 줄 안다고 기특하게 여겼다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 양반가의 아동에게는 어른과 같이 하인들을 다루는 것이 권장되었다.<sup>16)</sup> 따라서, 이몽창의 모습에도 상하간의 분별의식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16) 『미암일기(眉巖日記)』 1576년 1월 6일, 1576년 6월 13일 참조.(최혜진, 앞의 논문, 34~35면 참조)

이러한 의식이 시너를 활로 눈을 쏘아 애꾸눈이 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발현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sup>17)</sup> 이몽창은 부친이 돌아온 뒤 크게 꾸지람을 받은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이몽창에게 모친의 부재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마음 속 깊이 남아 있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모친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는 듯했지만, 어느 날 문득 모친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이몽창은 다시금 한 맺힌 내면을 토로한다.

츠시 망월이 두렷혀여 옥난의 비취니 상셰[이관성] 단의만 입고 난간의 비겨 목연이 안갯터니 몽현이 문득 왈 “희이 오늘 드르 니 외조뷔 환경하시다 하니 명일 가서 뵈오미 엇더하니잇고” 상셰 미쳐 답디 못혀여 몽창이 문득 닐오디 “니 일즉 외조부라 말을 아디 못혀니 뉘니잇고” 몽현이 문득 탄왈 “네 철 모르는 말을 하는도다 이 곳 모친의 부피시라.” 몽창 왈 “그러면 우리 모친이 어더 계시뇨” 몽현 왈 “니 스 세 적 모친이 친뎡 가신다 허더니 그 후는 다시 보옵디 못혀니 그 연고를 몰나 허노라” 상셰 이 으의 어미 심각흔를 보고 쏘흔 심시 도치 아녀 닐오디 “네 어미 네의 외조부를 쫓와 가다가 도적의게 좃치여 스심을 아디 못혀느니라” 몽현 형데 이 말을 듯고 훌연 낫치 눈물이 ㅁ득혀여 말을 아니허거늘 상셰 진짓 꾸지저 금하고 이 으를 명혀야 둘을 두고 글을 지오라 하니 몽현은 시셔를 닉이 아는디라 즉시 칠언을 슈 지어 드리니 ㄷ 〃 쥬옥 ㄱ고 언 〃 금슈라 상셰 심하의 두긋기물 춤디 못혀니 몽창드러 닐오디 “몽현은 글을 짓거늘 너는 엇디 글을 아니 짓는다” 몽창 왈 “희이 아직 글을 짓디 못혀오니 다만 월하의 읊혀 야 〃 명을 밧들니이다.” 상셰 의스를 보려 하여 닐오디 “네 문즈를 모르니 무어시라 홀다” 몽창이 드더여 손으로 난간을 두드리고 칠언 스운을 읊흐니 그 소리 비절 처초혀야 구소의 스뭇는 둥 귀마다 즈모를 니별혀여 제 인간의 나며 현모 얼굴 모로를 늦긴 뜻이로

17)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비복들은 나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니, 마땅히 은혜를 먼저 하고 위업을 뒤에 하여야 그 마음을 얻을 것이니, 임금이 백성에게 있어서와 주인이 비복에게 있어서서 그 이치가 똑같은 것이다.”(『격몽요결(擊蒙要訣)』 『거가장(居家章)』(박세무·이이, 『동몽선습·격몽요결』(성백효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1998, 130면))라고 하여 하인들을 정성스레 보살피야 한다고 한 바 있듯이, 조선시대에도 상하 간의 질서 속에서도 하인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글썽이 응심하고 그윽하며 널너 싱각디 못홀 배라 읊기를 파하고 눈물이 옥협의 구으니 몽창이 참디 못혀여 실성테읍히고(<쌍천기봉> 4권, 『쌍천기봉』 상:462~463면)

2살 때부터 모친과 헤어져 지내던 이몽창은 아예 모친의 존재를 잊고 지냈지만, 어느 날 ‘외조부’가 돌아온다는 형 이몽현의 말을 듣고는 생전 들 어보지 못한 단어이기에 외조부는 누구를 말하는지 묻는다. 형이 모친의 부친을 말한다고 하자, 이몽창은 그러면 모친은 어디에 있느냐고 되묻는다. 이에 부친으로부터 모친이 외가로 갔다가 도적에게 붙잡혀 간 정황을 듣게 된 이몽창은 낮에 눈물이 가득하게 되고, 이후 시를 읊을 때도 모친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다.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외조부의 존재는 불현듯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모친의 존재를 상기시키면서 모친에 대한 그리움이 폭발치게 되는 것이다. 이후 이몽창은 모친이 도적에게 잡혀간 것이 아니라 경태수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친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조금씩 마음을 진정해가고, 중국에는 살아 돌아온 모친을 상봉한 뒤에야 비로소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다. 이처럼, 두세 살의 어린 나이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모의 부재 속에서 상처받는 이몽창의 모습은 어른들 간의 갈등이 그들은 물론, 그 밖의 가족구성원에게까지도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는 부모 두 당사자 간의 갈등 속에서 상처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창란호연록>과 <옥원재합기연>에서는 부모가 극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다거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창란호연록>의 장추성의 경우에는 부친 장희와 모친 한천희와의 갈등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부친 장희가 모친 한천희의 부친인 한제를 장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장추성의 부모 두 사람은 심각한 갈등을 겪는데, 이러한 극심한 갈등 속에서 장추성은 “일신이 칠규(七竅) 겨우 어리어 싱도(生道) 어려운”<sup>18)</sup> ‘조산아’로 태어난다.

18) <창란호연록> 5권, 『필사본고소설전집(창란호연록)』 9:551면.

한천희가 임신 중 장희가 한천희의 집안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한천희는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 달을 채우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장추성을 낳은 것이다. 장추성은 장희와 한천희의 부부 갈등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부친 장희가 한 달간 품에 품어 기름으로써 간신히 장추성은 소생하지만 이후에도 장희와 한천희 간의 부부 싸움이 일어날 때면 아들인 장추성에게로 그 불뚱이 튈다. 장희가 출정하였다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으나 한천희가 장희를 보는 것을 꺼려 친정에서 한참 후에야 돌아오자, 장희는 대로하여 장추성에게 대신 죄를 물어 태장(笞杖)한다.

설파의 영치를 지족하여 공즈[장추성]을 중계의 세우고 피라 홀시 혹시[장희] 봉안이 습열하여 혼천설풍 ㄹ흔지라 영치 감히 인정을 두지못하여 힘을 다하여 사오 장의 이르러 피육이 드러느니 (...) 혹시 노기 발하여스나 존잉이 런히되 소져[한천희]는 혹스 추성을 슈죄하는 말을 듣고 불연 녁쇼하여 안식이 즈약녕담하니 혹스 비록 상하의 죽인들 공겹히는 안식을 지을 지리오 혹스 소저의 가열히미 썬지 아나시를 보니 더취 중이라 아즈의 의련히미 지극하나 노기 오히려 가드ㄹ고 본디 발노흔죽 ㄹ치기 쉽지 아니흔지라 (...) 십여 장의 밋쳐는 추성이 츄마 견디지 못하여 슬피 고희며 황 “소즈 죄을 아옵느니 잠간 쉬여 마질리이다” 하는 소리 존잉흔지라 쇼저는 도라보지도 아니흔지라 (<창란호연록> 10권, 『필사본고소설전집(창란호연록)』 10:407~408면)

부친 장희는 애처로운 것을 알면서도 장추성을 때리고 모친 한천희는 남편에 대한 한이 맺혀 자식이 맞는 것에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냉담하다. 장희는 자신이 장추성을 피가 나도록 때리면 한천희가 겁을 먹고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지만, 한천희가 조금의 미동도 없이 태연자약하기 그지없자 이에 더욱 화가 나 장추성을 더 심하게 매질한다. 부부간의 갈등 속에 자식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양상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모친 한천희의 냉담함이 두드러진다. 한천희는 평소에도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아이들을 “흔 번 실상(膝上)의 안칠 적이 업고 (...) 미양 안식(顏色)이 녁담(冷淡)”<sup>19)</sup>할 정도

19) <창란호연록> 11권, 『필사본고소설전집 (창란호연록)』 10:464면.

로 차갑기 그지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으로 부모의 갈등 속에 아이들이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는 양상이 장추성을 통해 잘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옥원재합기연>의 소봉희, 소난주의 경우도 그 부모인 소세경과 이현영이 <창란호연록>의 장희, 한천희와 유사한 갈등을 겪는 가운데 장추성 등과 흡사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 이현영은 자신의 부친을 멸시하는 남편에 대한 한스러움과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부친의 실덕이 자꾸 드러나는 것에 낙심하여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아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젓먹이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아이들을 방치하게 된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이현영은 죽을 결심을 하고 밥을 먹지 않은 채 침상에 엎드려 있으면서, 아들 소봉희가 울면서 죽그릇을 받들어 권하나 이를 외면하고 어린 딸 소난주가 배고파 서럽게 울면서 젓을 먹으려 하나 돌아보지도 않는다. 두 아이의 울부짖는 광경이 이현영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sup>20)</sup>

이러한 대목들은 부모의 갈등 속에 아이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상처를 입는가를 잘 보여준다. 가장 연약한 뿌리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갈등 속에 그 존재 기반이 흔들릴 만큼 극도의 좌절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고충은 단지 아이들의 고충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어른들로 인해 야기된 사건의 상처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② 한편, 아이들은 부모의 부재 혹은 부모 두 사람 간의 갈등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악인형 인물 등에 의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거나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형 인물이 자신의 부모일 경우 극도의 갈등상황 속에서 자살을 택하기도 한다.

20) <창란호연록>의 한천희(한난희)와 <옥원재합기연>의 이현영과 관련하여 모성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난 주체적 여성의 등장을 보여준다고 평가한 연구도 있다.(이지하, 『여성주체적 소설과 모성이데올로기의 파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이들 여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는 적실한 논의이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부모의 갈등 속에 모친에 의해서마저도 외면당하는 슬픈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때 아이들의 비극적 현실은 어른들의 갈등 양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작용하게 된다.

먼저, 악인형 인물에 의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거나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국면에 처하는 아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완월회맹연>의 정몽창 형제의 경우에는 자신의 친조모가 아닌 계조모인 소교완 때문에 수차례 씩이나 죽을 위기를 맞는다. 소교완은 자신의 친생이 아닌 양자 정인성이 가문의 종통을 잇게 된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정인성과 그의 아내 이자염 그리고 그 아들인 정몽창까지 없애려 한다. 정몽창이 태어난 지 팔삭이 되었을 때, 소교완이 독약을 넣은 음식을 줌으로써 정몽창은 죽을 뻔하나 간신히 위기를 넘긴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교완은 지속적으로 정몽창을 살해할 계획을 꾸밈으로써 정몽창은 계속해서 위험 상황에 노출된다. 정몽창의 동생 정몽현의 경우에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다. 소교완은 며느리인 이자염의 분만실에 들어가서는 신생아인 정몽현을 상자에 넣어 절벽에 떨어뜨려버리고 다른 집 신생아를 대신 데려다 놓는다. 다행히 소교완의 친정인 소씨 가문에서 소교완이 악행을 저지를 것을 짐작하고 정몽현을 구해내지만, 정몽현은 출생의 순간부터 버려지는 불행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성현공숙렬기>의 임창홍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일을 겪는다. 임창홍의 계조모인 여씨는 임창홍이 태어나자 상자에 넣어 버리는데, 이때도 다행히 여씨 가문에서 구해낸다.

정몽창 혹은 임창홍의 부모들은 소교완, 여씨 등의 반동인물에 의해 이미 위험상황에 처해 있거나 모자(고부) 관계 등의 수직적 관계에 놓여 있기에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에도 벅찰 뿐 아니라 별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어렵기에 아이들은 무방비의 상태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출생의 순간부터 버려지거나 요행히 살아나도 끝없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된다.

<조씨삼대록>의 양성홍은 악인의 독수에 걸려 아예 죽임을 당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일야는 조시 정신이 혼미하여 유적[양성홍]를 것히 누이고 잠을 드니 유랑 등이 좌우로 보호하여 누엇더니 잠이 깃혔는디라 유이 씨여 울거늘 춘쇠 씨를 타 독약을 급히 가라 너흐니 (...) 호흡이 천축하고 괴식이 황〰〰호여 통세 비경

흔지라 (….) 조시 놀나 눈물을 먹음고 왈 “으히 병이 불시의 심원벽쳐의셔 의 약을 홀 수 업스니 었디 구히리오 (….) 이 씨의 부지 보아 유명의 한이 업게 흥미 올티 아니리오 네 비록 문을 잠가시나 빗비 수문 노즈다려 이 물을 니르고 가군의 계신 곳을 무러 으히 병이 급함을 고흐라” (….) 춘쇠 상서귀는 가지 아니히고 광시귀 니러러 수물을 고흐고 (….) 다른 시너로 나가보라 혼 즉 광시 발셔 녕혀여 막고 니여보니디 몰나 하니 능히 문을 깨치고 나갈 길 업서 도라 온지라 (….) 연흔 장위의 독약이 오장을 상히는지라 었지 회심키를 바라리오 속절업시 나뉘 화등의 잠기미니 형영이 의연하나 명이 잠시간 진하니 스경 말이라 (….) 병뉘 광시의 거절하므로 만월당의셔 제네로 금가를 댓다가 야심 후 잠을 드니 홀연이 아즈 흥이 앓히셔 울며 왈 “부모기 만년 기즈어늘 흥인 독수의 명을 못차니 비명비혼이 운소의 훗터지” 아냐시나 부친을 혼변 영별티 못하니 원한이 밋쳤는디라 부인은 생각지 아니시나니잇가” 흐거늘 병뉘 디경 하여 붓들고 물혀려 하니 홀연 간 디 업는디라 병뉘 실성오열하다가 깨오니 침변일몽이라 (….) 막음이 착급해야 신성도 못하고 바로 은설당의 니르니 수문재 복디하여 공즈의 죽어시물 고흐는디라 소탈한 막음의 죽음을 듯고 탄식 유체할 분이오 존당의 고흐고 시노를 명혀여 안장하라 하니 구괴 추언을 듯고 탄식비읍함을 마치 아니헐더라 (<조씨삼대록> 18권, 60~70면)

양성홍은 양인광과 조월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광씨의 독수에 빠져 죽임을 당한다. 부친인 양인광은 둘째 부인인 광씨에게 미혹되어 정실부인인 조월염을 냉대하고 모친인 조월염은 광씨의 간계에 의해 간부와 통정했다는 누명을 쓰고 누실에 갇혀 지내는데, 이때를 틈타 광씨는 조월염의 시비 춘소를 매수하여 갓난아이인 양성홍을 독살한다.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 춘소가 양성홍에게 독을 먹이자 양성홍은 호흡이 급해지며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누실에 갇힌 조월염은 의사를 부를 수도, 해독약을 쓸 수도 없어 난처해 하다가 비록 자신을 냉대하는 남편이지만 도움을 구하려고 시너를 시켜 남편 양인광에게 위급한 사실을 알리려 한다. 하지만, 춘소는 명령을 듣고도 일부러 양인광에게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조월염이 또 다른 시너를 양인광에게 보내도 광씨가 중간에서 이를 번번이 차단한다. 광씨의

치밀한 계략 속에 양성홍은 어떻게 손을 써 볼 수도 없이 죽고 만다. 그간 곱씨에게 빠져 있어 조월염과 양성홍에게 무시했던 양인광은 이날 밤 꿈에서 양성홍이 나타나 영별 인사를 하자 깜짝 놀라 깨어나서는 급히 양성홍의 소식을 묻는다. 하지만, 양성홍이 이미 죽은 것을 알고는 소탈한 성품의 양인광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장례를 치른다. 이처럼, 악인들의 요악한 간계 속에서 모친은 제대로 손을 쓸 수 없고 부친마저도 무심한 상황 속에 양성홍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 양성홍은 어른들의 갈등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아동의 극단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갓난아기와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생각이 숙성한 아동의 경우에도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 자살을 택하는 등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소현성록>의 위유홍에 관한 대목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유홍이 두 형과 누의 다 종적이 업스미 제 어미 연권 줄 아난디라 므음의  
 생각호되 “유교를 밧즈왔더니 돌시 도라오디 못호야셔 세 동성의 거처를 모  
 르니 이는 다 모친의 타시라 구천 타일의 부친 안전의 뵈오미 붓그럽디 아니  
 리오 호믄며 이 말이 세상의 퍼디면 내 어니 늦츠로 형세호야 티인호리오” 호  
 더니 방시 저조호려 호믄 보고 울며 간왓 “태” 엇디 츄마 이런 일을 호려 호  
 시느니잇가 (...) 부친 님종 유언이 석목이 감동홀 거시어늘 홀로 태” 뉴렴호  
 미 업스샤 못 잇도록 호야 내티시고 또 이런 저조를 호려 호시니 이런 변이  
 고급의 어디 이리잇고 구티야 낭형을 죽이라 호시는 쓰디 위시 종스를 그츠려  
 호시미니 이럴딘대 쇼지 문져 죽어 쾌망을 시험호리이다” 방시 꾸지저 왓 “아  
 히 미거호야 세상 일을 모르느도다 더 유양 등이 선부틀 범홀 리 업셔 반드시  
 위시 지산을 오로디 가지고 널로써 도로의 개결호야 주려 죽기호리니 이를 싱  
 각호면 애 일만 번이나 그쳐디니 더의 남미를 업시호고 널로써 부귀를 홀로  
 누리과려 호거늘 엇디 망녕된 말을 호는다” 유홍이 크게 울고 (...) 유홍이 물  
 리와 생각호되 ‘모친이 듯디 아니시니 홀 일이 업손디라 헤아리건대 내 이시  
 므로 모친이 이 지물로써 앓기샤 이 거조를 호시니 엇디 내 몸을 인호야 여러  
 동심을 죽어리오 (...) 타일 이형이 싱환호면 결단코 구호을 두디 아냐 민즈의

공순을 니르혀 모친을 평안이 밧들니” 넘너를 말고 썰리 죽어 디하의 가 부친을 뵈셔시리라’ 듀의를 덩하고 (….) 서당의 드러가 칼 찌터 떡 딜러 죽으니 나히 칠세라 가히 어엿브다 (<소현성록> 5권, 45~48면)

위유홍의 모친 방씨는 그 남편 위승상이 죽은 후 곧바로 전처소생인 위유양, 위유동 형제와 위선화 등을 죽이고 자신의 친자 위유홍을 집안의 중통으로 세우려 하나, 위유양 형제는 구승상 맥으로, 위선화는 약혼한 가문인 소씨 가문으로 피신하는 통에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에 방씨는 구승상의 부인 양씨와 결탁하여 위유양 형제를 죽이려 시도하고, 이 계획이 실패한 뒤에도 또 다시 악행을 꾸미려 한다. 이를 간파한 위유홍은 자신의 배다른 형들과 누이를 죽이려 하는 모친 방씨에게 간곡히 간언하지만, 방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도리어 세상일을 모른다면서 위유홍을 혼낸다. 이에 세상에 설 면목을 잃게 된 위유홍은 모친의 모든 악행이 다 자신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는 자살함으로써 형들과 누이의 목숨을 살리고 모친의 악행도 그치게 하고자 한다.

이처럼, 위유홍은 7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사려 깊은 인물로 등장한다. “너는 영명(英明)헌 아히라 비록 늑 세나 즈못 숙성(夙成)헌니 네의 모친을 어디리 돕고 네 누의와 두 형을 어엿비 너겨 혜태(惠帝)의 인약(仁弱)헌를 범밧디 말라”<sup>21)</sup>는, 부친의 전년 유언을 항상 생각하면서 모친을 설득하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희생을 통해 가정의 불화를 막으려 했던 것이다. 이런 대목은 위유홍의 아이답지 않은 숙성한 면모를 부각시키면서도, 한편으로 아무리 생각이 깊은 아이라도 어른들의 갈등 앞에 처참히 상처 받을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그가 아무리 애써도 모친을 설득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어린 그가 형들과 누이를 그 스스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없기에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써 불행한 가정사를 매듭지으려 했던 것에는, 갓난아기처럼 천진스럽기만 한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처럼 사려 깊은 아이도 어른들의 갈등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21) <소현성록> 5권, 12면.

요컨대, 어른들 간의 갈등이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부에 깊숙이 파동을 일으키며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 내부의 가장 연약한 조직체인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 할 만큼 그 파급력이 크게 미치게 된다. 아이들은 갈등의 참상을 경험하는 최극단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작품 내에서 갈등의 심연을 조망케 하는 ‘바로미터’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3) 분위기 진작 및 갈등 해소의 윤희유

대하소설에서 아동은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편, 그 천진함으로 인해 윤희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 이들 중 매우 어린 아이들은 그 천진함으로 인해 분위기를 진작시키는가 하면, 갈등 해소의 윤희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 우선 아이들이 그 천진함을 발산하면서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장면은 여러 작품들에서 나오는데, 그 한 예로 <완월회맹연>의 상연교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상연교가 외가에 오자 외가의 표종사촌인 정인광이 상연교를 놀림으로써 어른들을 웃게 만든다.

넌광이 소왓 “규슈로서는 하 먼 인시로다 네 무슴 일노 무서워 흐느 어디가 옥인 괴군즈를 어더 니 특별이 둥미 되어 네 일성을 빗너리라.” 연괴 왓 “괴군즈라 흐느 거시 무슴 노리지완디 날을 어더 쥬련다 흐느뇨 옥심 업스니 아모것도 가지기 슬희여라.” 넌광이 연교에 언스를 우으며 왓 “네 아모리 슬타 흐여도 한번 괴군즈를 만닐 터이니 두고 보라.” 연교 증녀여 왓 “괴군지가 무어신지 느는 슬코 다만 우리 야야를 짚아 본부로 가리라.” 넌광 왓 “제 아모리 괴군즈를 보고즈 흐느 아직 머릿도다 타일 너의 가뵈 손을 잇글고 신방에 드러갈 제 네 굵찌에도 느를 무섭다 흐라 느의 옥면을 무섭다 흐거니와 네 가부 구홀 제는 니 듯보아 느에게서 더흔 당뵈를 갈희리라.” 연괴 노흐여 부친스미를 달히여 왓 “모딘 눈을 흘기며 붓치오니 야야는 쭈지저 물니치소서.” 상세 체체흔 스랑이 일신이 으슴거리고 만면 우움으로 스미를 드러 낫출 가리

오고 왈 “넌광아 그만 하고 굿쳐 니 쌀에 붓치를 업시 하라.” 넌광이 웃고 왈 “네 놀을 슬회여 하는 옥인 가랑을 다려가다 네 침소로 보되면 그 착흔 오라 비 락양 보고시부다 흐리라.” 좌상 제인이 냥아의 거동을 보고 두근겨 소저에 괴괴 묘묘흐를 칭찬하고 넌광을 첨망킨더 공지 양부인 슬하에 제슬 단좌하여 시니 경운이 남풍에 혼흔하고 혜일이 춘양에 만물을 부혹하는 듯 (...) 조부미 등을 어로만져 웃는 입을 주리지 못하더니 (<완월회맹연> 1권, 『완월회맹연』 1:55~56면)

위의 대목은 5세인 상연교와 6세인 정인광이 “기군자(奇君子)”를 소개로 대화를 주고받는 부분이다. 외가에 놀러온 상연교가 그 부친의 무릎 위에서 어리광만 부리자 이를 놀리던 정인광은 이번에는 기군자를 얻어 상연교의 중매 노릇을 해서 그 일생을 빛나게 하겠다고 하면서 장난을 친다. 상연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군자를 노리개와 같은 패물 취급하면서 자신은 욕심이 없으니 갖기 싫다고 말한다. 이에 정인광이 웃으면서 상연교가 아무리 싫어해도 기군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상연교는 화를 내며 자신은 부친을 따라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뿐이라고 말한다. 정인광은 이러한 상연교의 모습을 보고는 지금은 자신을 싫어하지만 훗날 자신이 기군자를 구해주면 그 때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하자, 상연교는 자신을 모진 눈으로 흘겨보며 놀리는 정인광을 혼내주라고 부친에게 말한다. 이에 다시 정인광이 훗날 자신이 기군자를 상연교의 침소에 데려다주면 자신을 무서워하기는커녕 매번 착한 오라비를 보고 싶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 되받아치면서 이 둘의 대화는 일단락된다.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상연교 같은 어린아이와 마치 세상 물정을 다 아는 듯이 구는 정인광 같은 “숙성(夙成)호 야기낙”<sup>22)</sup>의 모습은 어른들의 눈에 띄어나 천진스럽게 비취지면서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처럼 아이들은 본의 아니게 그 천진스러움으로 인해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많은 대하소설에서 아이들의 등장은 즐거울 때는 더욱 즐겁게 하고, 슬플 때는 그 슬픔을 잠시

22) <완월회맹연> 1권, 『완월회맹연』 1:57면.

잇고 웃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② 한편, 아이들은 그 친진함으로 인해 갈등 해소의 윤회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완월회맹연>에서 정인광과 장성완은 장성완의 부모의 패행으로 인해 좀처럼 사이가 회복되지 않는다. 심지어 정인광은 장성완에게 세 번이나 자결 명령을 내리기까지 한다. 이런 정인광이기에 집안 식구들은 정인광이 출정(出征)한 사이 태어난 정몽천, 정혜주 남매를 다른 친척의 아이인 것처럼 꾸며 정인광을 골탕먹이기까지 한다. 정인광이 다른 형제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자신은 자식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중, 정몽천, 정혜주가 자신의 친자식임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그는 두 아이에 대한 애정을 남들 앞에서는 좀처럼 표현하지 않으며 오히려 험상궂은 표정을 짓기까지 한다.<sup>23)</sup> 하지만 두 아이의 순진무구한 모습 앞에서 남들이 없을 때는 무한한 애정을 내보이는데, 이는 이후 아내 및 장인장모와의 갈등을 푸는 발판이 된다.

네뵈[정인광] 명광현의 홀노 이셔 창을 열고 원산의 프른 빗치 회싱호를 첨 망호더니 혜주 유모에게 안겨 경운누 둥문을 너미러 보고 옥저 갖튼 손으로 막쳐 교교히 소리호야 야야랄 브르느니라 네뵈 만면 동황이 춘풍을 닛그러 확성이 이랑호야 나오를 명호느니라 유피다려 난두의 올니미 몽천이 미조츄 나와 남뵈 서로 닛그러 입실호니(...) 네부의 구척신이 연연호야 므른 썩 갖튼 니 교구 접항호야 정신과 의식 다 어런디라 안석의 누어 너으롤 가슴 우히 언고 몽천을 곶히 안쳐 빅만 귀뵈이 불가형언이니 (<완월회맹연> 136권, 『완월회맹연』 10:23~24면)

정인광이 홀로 앉아 창을 열고 먼 산을 바라볼 때 유모에게 안겨있던 딸 정혜주가 고사리 같은 손을 들어 귀여운 목소리로 부친을 부르자 정인광

23) 여기에는 남들 앞에서 자식에 대한 애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았던 당대의 시대적 정황과 장인장모에 대한 미움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정인광의 개인적 사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얼굴에 훈풍이 가득한 채로 정혜주와 아들 정몽천을 데리고 방에 들어온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뺨을 비비면서 무른 떡이 될 정도로 애정을 흠뻑 표현한다. 정인광은 이후 두 아이를 생각하면서 점차 장인 및 아내와의 갈등을 풀어나가게 된다. 정몽천, 정혜주 남매는 어른들의 갈등을 녹여주는 유희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요컨대, 아이들은 그 천진함으로 인해 어른들의 마음을 씻어 주면서 유쾌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분위기 메이커’로서, 또는 그 동안 쌓여왔던 갈등의 응어리를 녹이는 ‘갈등 해소의 유희유’로서 기능하게 된다.

#### 4) 사건의 본질 포착 및 해결

대하소설에서 아동은 갈등을 풀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건의 본질을 포착하면서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그 진실한 눈으로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사건의 본질을 포착하기도 하고, 아이답지 않은 노숙함으로 어른들을 감동시킴으로써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기도 하는 것이다.

□ 먼저, 아이들이 그 순수하고 진실한 눈으로 사건의 본질을 포착하는 경우를 보면, <쌍성봉효록>의 임성인·임성현 쌍성 형제와 임월아 등과 관련한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이 세 아이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기에 요물의 존재를 단번에 알아채고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누단 양 부인이 일시의 도라오니 성인 형제와 월은 소제 모친을 뵈서 쓰라왔는지라 (...) 월은 소제 당시 칠 세의 도성신오호미 임의 성인의 즈품을 일우고 조심경 안광이 천이밭 일을 아는 명견이 잇는지라 우연니 효성 쌍안을 거듭 쓰는 바의 두 줄 스일이 가소시 신상의 맞치니 이 문득 소속되 아니라 전일 어스부의 스취 가탕시라 월이 디경혀여 “경운각 소속되 어더 계신이잇고” 티존당 티부인니 소왈 “아히 엇지 요망호요 소시 좌의 잇거늘 엇지 찾는다”

월이 청과의 디경하여 가소시를 지습 첨망하고 면식이 여토하여 말을 못허거  
 늘 좌위 월의 기식을 보고 놀으며 소시를 도라보고 성인 성형이 (...) 일즉  
 숙당제미라도 눈을 들미 업드니 종미의 말을 듯고 양 공지 비로소 스일 쌍광  
 을 잠간 흘려 소속모을 보니 이 문득 탕시 너지라 양 공지 일견의 디경실식하  
 여 서로 도라보고 말을 못허거늘 (...) 승상이 숨으을 느오라 하여 그 손을 잡  
 고 문왈 “소〓부의 얼골이 너의 눈의는 엇더허관디 여등의 괴식이 다르요  
 각〓 소견을 실진허라” 양이 계슈 디왈 “소손 등이 소견을 알외고즈 호오나  
 소속피 노흐실가 저허〓 늑이다” 승상 왈 “소시는 너등의 제모 향녘이니 숙질  
 의 친이 모즈로 다르미 업논이 그 소견을 이르미 무슴 혐의 잇시며 소시 노흐  
 디오” 양 공지 침음 디슈 왈 “즈고 금〓의 슄람의 진형은 음양진권의 속흔 바  
 로 인형을 일위시니 갓 느며 즈라미 그 평성 진명이 다르미 업논이 소손 등이  
 식안니 혼후하여 정기 요양허니 잘못 보미 잇스온지 소속모의 존안을 보온즉  
 이 문득 경운각 속피 아니시라 전츠 중부의 슄취하여 계시든 벼 탕부인으로  
 교시의 근본을 발각하여 교어스의 다려가든 속모와 갓트시니 소손 등의 예혹  
 하는 비로소이다” 말을 이어 월은 소제 념임 고왈 “양형의 지감이 정이 손녀  
 의 관견과 다르미 업늑이다”(〈쌍성봉효록〉 9권, 59장 뒷면~61장 앞면)

쌍성 형제와 임월아 세 사람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을 타고난 인  
 물이다. 그렇기에 교씨가 소씨를 납치해 간 뒤 개용단(改容丹)을 먹고 가소  
 씨 행세를 하고 있을 때 이들이 있었다면 그 정체가 즉시 탄로났을 터이지  
 만, 마침 이들이 각각 모친을 따라 외가에 감으로써 한참 동안 교씨는 임씨  
 가문에서 가소씨처럼 행세한다. 평소 유한정정한 소씨와는 달리 경거망동  
 한 가소씨를 보고 집안 식구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아무도 가짜 소씨임  
 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런데 쌍성 형제와 임월아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들은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가짜 소씨가 소속모가 아니라는 사  
 실을 설파한다.

먼저, 임월아가 소속모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함으로써 집안 식구들을 깜  
 짝 놀라게 만든다. 임월아가 소씨를 눈앞에 두고도 소씨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집안 식구들은 무슨 요망한 말을 하냐고 하지만, 뒤이어 쌍성 형제도

가짜 소씨를 보고는 대경실색하여 소속모가 진짜 소속모가 아니라 일전에 탕씨가 아니라 교씨임이 발각 나 쫓겨난 임숙부의 넷째 부인으로 보인다고 말하자,<sup>24)</sup> 집안 식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아이들은 그 맑은 눈으로 요물의 실체를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쌍성 형제와 임월아의 직언 뒤에 교씨 노주(奴主)가 피를 내어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자, 어른들은 “쌍성 월의 맑은 안광(眼光)이 그릇 보미 업슬가 흥느이다”<sup>25)</sup>라고 인정하게 된다. 교씨의 정체가 탄로나게 된 급박한 순간, 밖에 있던 교씨의 시녀 영매가 자신이 안고 있던 소씨의 아들 성빈을 일부러 떨어뜨려 교씨를 방 안에서 나오게 하는 꾀수로 교씨 노주가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자, 방안에 있던 식구들이 쌍성 형제와 임월아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어른들과는 달리 요물의 실체를 파악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장면은 이후에도 이어진다. 교씨 노주는 간신히 집안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초인(草人)으로 소씨의 형상과 소씨의 시녀인 초향의 모습을 만들어 자살한 척 꾸민 뒤 도주한다. 이 때문에 집안이 다시 발각 뒤집히면서, 가소씨와 가초향의 시신을 두고 상례를 치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게 된다. 이때 쌍성 형제와 임월아가 가소씨와 가초향의 시체가 한낱 초인일 뿐임을 밝혀내어 어른들로 하여금 사건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쌍성 형제가 가소씨와 가초향의 시신이 진짜 시신이 아니라 초인의 형상임을 간파하고 시신을 살피고자 하였으나, 조부와 부친이 어린아이들이 요인에게 도리어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에 쌍성 형제는 두 장 부적을 만들어 남몰래 시녀 계파로 하여금 시신에 붙이도록 명령한다. 부적을 붙이는 순간 두 시신이 못풀에 옷을 입힌 초인의 모습으로 바뀌자, 집안 식구들은 이 모든 것이 요괴로운 무리의 짓임을 확실히 인

24) 교씨는 자신의 집에서 임씨 가문과의 혼사를 반대하자, 집을 뛰쳐나와 탕씨 가문에 의탁해 탕씨인 척 속이고 임계영과 혼인한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오라버니인 교여사와 대면함으로써 정체가 탄로나 임씨 가문에서 쫓겨난다. 이에 교씨는 다시 임계영의 정실부인인 소씨를 납치한 뒤, 개용단을 먹고 자신이 소씨로 변해 가소씨행세를 했던 것이다.

25) <쌍성봉효록> 9권, 62장 뒷면.

지하고는 권도로 상례를 치르고 진짜 소씨를 사방으로 찾는다. 한편, 자신의 실체를 들통나게 한 쌍성 형제와 임월아를 절치하던 교씨는 능운 이고에게 세 아이를 없애줄 것을 간청한다. 능운 이고가 임씨 가문에 와 동태를 살피다가 쌍성 형제 등이 부적을 써서 가소씨, 가초향의 형상을 본래의 초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한 사실을 알고는, 이들의 일월지명(日月之明)에 놀라 이 아이들 생전에는 교씨가 임씨 가문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교씨에게 알려준다. 이에 교씨는 임씨 가문에 받을 들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이후에도 교씨의 악행이 계속되기는 하지만, 교씨가 가짜 소씨로 변해 임씨 가문에 돌입한 기괴한 사건을 쌍성 형제와 임월아가 그 조마경(照魔鏡) 같은 안광으로 간파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쌍성봉효록>에서는 어른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요물의 정체를 아이들이 포착하는 장면을 통해 아이들의 진실한 눈은 요물도 속이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본래 타고난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른들도 모르는 사건의 진실을 아이들이 포착할 수 있다는 사실의 이면에는 아이들의 순수함을 높이 평가하려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음은 노숙한 아이가 어른을 능가하는 식견을 제시하여 어른을 감동 시킴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대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조씨삼대록>의 조명천과 관련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시 명턴이 칠세라 범스 처신이 노성 군즈의 괴품이 이셔 존당 부모 섬기  
미 가독훈 거술 빗음 꺾트니 능후의 스랑흐미 만금의 비길 비 아니라 이날 부  
인으로 더브러 즈녀의 아름다옴 두긋기더니 명턴이 안식을 화히 호고 부전  
의 꾸러 주왓 “쇼지 황공흐오나 인군이 실덕흐시미 신히 간흐고 부형이 그르  
시미 즈식이 간키는 성교의 경계라 대인의 못 미쳐 생각흐시는 바를 알외여  
용납흐실가 존엄을 간범흐여 알외노이다” 능휘 아즈의 온화흐고 이 꺾치 아  
름다옴을 보미 묵묵흐 얼골의 웃는 빗출 동흐여 무려 왓 “내 아히 오날 무슴  
말이 이셔 이러툃 유심흐며 말을 시작흐려 하냐냐 네 아비 만일 허물이 잇거

든 쾌히 니르라” 공지 니러 지비호고 문득 함누 고왈 “다른 일이 아니오나 (….) 대인이 맞당이 문왕의 덕을 이으샤 공경관디호실 거시여늘 홀노 강부인 디 박절호샤 도라오션 지 스오 일이로디 혼번 위로호시미 업스오니 전과를 곳 치시미 대인이 붉히 아르신 비라 그 어질물 아르신디 관접지 아니시니 이는 너모 박절호신지라 (….) 부인의 쇼쇼 허물을 관샤호시고 오상의 눈의를 심각 호시며 쇼즈의 민울호 정성을 슬피쇼셔” 말을 맞고 피석 부복호여 디답을 기 드리니 귀위 정숙호고 언에 유법호여 데순 증즈의 효성이 잇고 노성 군지라도 이의 맞지 못호지라 능휘 만면 춘풍이 유동호여 밤비 그 손을 잡고 탄왈 “하 로 미야지 태산을 넘뛰고 황구 쇼이나 아비 바랄 비 아니라 가히 오문의 유경 이오 우리 대인의 적션 여음이 네게 흐르미라 네 말을 드르니 강시 비록 아룸 답지 아니나 즈식의 효의를 세우지 못호게 호리오 으히는 다시 넘너 말나 내 맞당이 공평이 호여 근심이 되지 아니케 호리라” 공지 지비 샤례호더라 능휘 명탄의 규간을 드르미 비로쇼 구정 단심을 허러 강시를 보고 전과를 제기치 아냐 디접이 평상호고 부부지도를 예스로이 호디 그 위엄 중호여 튼튼하일 곳 터니 강시 미음을 곳친 후는 검공 근신호며 능후 곳 디호면 과도히 슈피호니 능휘 또호 개심호를 것거 츠후는 오 부인 디접이 공평호여 (<조씨삼대록> 20 권, 4~8면)

7세인 조명천은 정부인 소생으로 노성한 군자보다도 더 숙성한 면모를 지니고 있기에 평소에도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런데 부친 조유현이 자신의 또 다른 모친인 강부인을 냉대하자 부친에게 극친히 예의를 갖추어 간곡하게 간언을 올린다. 그간 강부인은 정실인 정부인을 모함하기 위해 시아버지의 방에 자객을 보내고 시할머니의 음식에 독을 넣은 뒤 이를 모두 정부인의 소행인 양 꾸미고 남편인 조유현에게도 요약을 먹여 마음을 혼미스럽게 하는 등 온갖 악행을 꾸몄으나, 그 악행이 들통 나 친정으로 쫓겨난 뒤에 개과하여 간신히 시댁으로 돌아온 상태이다. 하지만 조유현이 강부인과는 더 이상 부부의 도를 잊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기에 강부인에게 이미 발길을 끊은 지 오래였다. 이에 조명천은 임금이 그러면 충신이 간언하고 부모가 그러면 아들이 간언하도록 성인께서도 가

르치신 바 있으니 자신이 부친에게 간언을 해도 되는지를 조용히 여쭙어 부친의 허락을 받고는, 두 번 절을 한 뒤에 강부인만을 유독 냉대하는 부친의 처사는 옳지 않다면서 강부인을 후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게 된다. 조유현은 어린 아들의 노성한 군자와 같이 사려 깊은 태도와 식견에 감탄하여,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에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강부인에 대한 굳은 결심을 허물고는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는다. 이후로 조유현은 강부인에게 더 이상 그간의 잘못을 묻지 않고 부부로서의 도리를 이어가고, 강부인도 그간의 잘못을 더욱 부끄러워하기에 조유현이 강부인이 깊이 개과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면서 이들 부부간에 평화가 찾아온다.

이처럼, 조명천은 7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려 깊은 태도로 그 부모를 감동시킴으로써 부모의 갈등을 해결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명천의 식견 자체가 뛰어난 것도 한몫을 하지만, 7세의 아동으로 노성군자처럼 행동하는 그 의젓함을 어른들이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이런 노숙한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어른들의 배려심도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요컨대, 아이들은 그 순수한 눈으로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사건의 본질을 포착함으로써 진실을 밝혀내는가 하면, 어른처럼 노숙한 식견으로 어른들을 감동시킴으로써 갈등의 응어리를 푸는 ‘사건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 3. 대하소설 속 ‘아동’의 서사문법적 의미

대하소설에서 아동은 그 호기심과 어수룩함 그리고 장난스러움으로 인해 숨겨진 사건을 폭로하거나 새로운 사건을 매개하기도 하고, 그 유약함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한 참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 천진함으로 인해 어른들을 웃게 하면서 분위기를 진작시키거나 갈등을 해소케 하는 윤활유로서 작용하기도 하고, 그 순수함 혹은 노숙함으로 인해 사건의 본질을 간파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아이들의 모습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의 존재로 인해 대하소설 속 주요사건들은 더욱 극적이면서도 손쉽게 구조화된다. 숨겨진 사건을 알려주거나, 갈등의 심연을 드러내주며,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주고, 사건의 진실을 포착하는 등의 국면 설정은 쉽게 형상화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등장하는 순간 이러한 대목은 아주 자연스럽게 구체화된다. 아동은 사건의 국면 국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사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갈등의 당사자인 어른들에 비해 역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아이라는 위치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사건에의 접근 용이함이 아동용 서사기법 상 활용가치가 높은 존재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대하소설에서의 아동은 아동으로서의 모습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폭넓게 조망되고 있기에, 어른들을 비추는 일종의 ‘거울’로서 기능한다.<sup>26)</sup> 아이들은 거울과 같이 사물을 잘 비추는 특성으로 인해 어른들 간에 숨겨져 있던 사건들을 조명하고, 거울과 같이 깨지기 쉬운 특성으로 인해 어른들의 갈등의 참상을 신랄하게 보여주며, 거울과 같이 환한 빛으로 어른들의 삶의 고뇌를 덜어주면서 어두운 현실을 밝혀주며, 거울과 같이 투명하면서도 깊이 있는 존재감으로 어른들도 알지 못하는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직시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존재는 어른들 간의 갈등을 반영하고 되비추며 반추케 하면서 갈등의 당사자인 어른들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독자들에게 갈등의 실상을 깊이 있게 성찰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간 아동문학은 ‘다성부적’, ‘다음성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논의된 바 있다.<sup>27)</sup> 이는 작품 전체가 아동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하는 순수 아동문

26) 거울은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의 양극단으로 나뉜다. 긍정적 이미지는 ‘오직 신만이 완전한 거울’이라는 시각에서 신의 형상 즉 참된 진실을 대면케 하는 ‘흠 없는 거울’의 형상과 관련되며, 부정적 이미지는 ‘악마의 표정’이라는 시각에서 왜곡되고 변형된 현실을 대면케 하는 ‘이지러진 거울’의 형상과 관련된다.(사빈 멜쉬오르 보네, 『거울의 역사』(윤진 옮김), 예코리브르, 2001 참조) 아이들은 이 중 긍정적 이미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 투명함으로 인해 현실을 적실하게 반영하고 되비추며 반추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7) 마리아 니콜라예바, 『용의 아이들-아동 문학 이론의 새로운 지평』(김서정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8, 147~151면.

학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대하소설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아동에 관한 내용은 다성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른들의 목소리와는 다른 아이들만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작품의 다층적인 구도의 확립에 이바지하게 된다. 어른들과는 또 다른 목소리를 통해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어른들의 입장을 재조명함으로써 어른들의 목소리와 공명하면서 작품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하소설 속 아동은 대하소설의 ‘총체성’을 구현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대하소설은 각양각색의 사건을 통해서 삼라만상의 이야기를 펼쳐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서도 노인층에서부터 청장년층 그리고 아동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각을 고루 반영함으로써 삶의 단면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계층적으로도 왕실의 최상층에서부터 사대부가 가문구성원 그리고 시동·시녀 등의 하층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쌓인 인물 군상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면, 연령상으로도 가장 나이 많은 가문의 어른으로부터 청장년층의 구성원, 그리고 가장 나이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시각을 고루 반영함으로써 대하소설의 총체적 구도는 더욱 탄탄해진다. 계층별, 연령별로 각계각층의 시선을 길항하면서 종횡으로 엮음으로써 인생총서로서의 대하소설의 무게감은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대하소설 속 아동의 존재는 각각의 연령층의 입장을 빠짐없이 담아내는 총체적 구도의 확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의 총체적인 재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중·단편소설에서도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통해 한 개인의 일생을 보여준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는 극히 소략할 뿐더러 대개는 비범성을 드러내거나 위기를 벗어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반해, 대하소설에서는 아이들의 모습 그 자체의 재현에 충실하며, 이는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의 성격적 특징 혹은 성인으로 커나가는 성장 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중하고 침착한 성향의 아이들과 장난스럽고 활동적인 성향의 아이들은 커서도 각기 그러한 특징을 보인다. <쌍성봉효록>의 쌍성 형제, <조씨삼대록>의 조명천 등은 어렸을 때의 진중한 모습이 커서도 성인군자로서의 면모로 유지되며, <쌍천기봉>의 이몽창, <조씨삼대록>의 조명윤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의 장난스러움이

커서는 호방한 성격으로 발현된다. 한편으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점차 장점을 키워나가고 단점을 개선함으로써 대하소설은 ‘성장소설’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 인간의 인생 전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중·단편소설에 비해 훨씬 더 섬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sup>28)</sup>

이런 가운데 아동과 관련한 장면은 이후 펼쳐질 사건의 복선이나 반전의 계기로서 작동한다. 이를 통해 작품 전체의 구조를 탄탄히 하는 것은 물론 독자들에게 작품의 묘미를 느끼게 하고 생각할 거리까지 남겨준다. <임화정연>의 정연경의 경우, 발이 저리다는 핑계를 대면서까지 누이의 옥연시를 몰래 가져다가 임규와 정연양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위해 애쓰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는 임규와 정연양의 결혼을 반대하는 모친으로부터 매를 맞기도 하고 정연양을 호시탐탐 노리는 진상문으로부터 몇 차례나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정연경의 어릴 적 모습은 이후 그가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완월회맹연>의 상연교의 경우에는 자신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외가에 가서도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하였지만 이후 집안 식구들이 하향(下鄕)하는 길에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가문구성원으로 하여금 극도의 슬픔을 자아내게 하면서 독자들에게는 반전에 가까운 충격을 안겨준다. 이후 온갖 고생을 한 끝에 어른이 되어서야 부모를 찾게 됨으로써 자신의 본래 위치를 회복하지만 부귀가 막내딸로서 대우받던 모습과 고아처럼 외롭게 떠돌던 모습이 대비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인생살이의 굴곡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아동과 관련한 장면은 이후의 사건들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후 펼쳐질 사건의 복선 혹은 반전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작품의 묘미와 깊이를 더해준다. 한 인물에 대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중·단편소설과는 달리 대하소설에서는 여러 인물들에 관한 사건들이 교차적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한 인물과 관련하여 드문드문 등장하는 사건들

28) 어린 시절에 죽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동은 아동기 이후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함께 나온다. 한 개인의 일생을 그 어린 시절부터 청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찬찬히 짚어내면서 그 일생 전체를 하나하나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하소설의 인물 형상화는 여타의 소설과는 차이를 보인다.

사이의 긴밀한 조응을 통해 독자들은 퍼즐을 맞추듯 대하소설을 읽는 재미를 맛보며 각각의 장면들의 상응구도 속에서 인생을 더 깊이 통찰하게 되는데, 아동에 관한 내용에서 이런 특징들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대하소설에서의 아동의 존재는 작품 전체의 총체성의 구현과 한 인간의 총체적 삶의 구현을 위해서, 그리고 작품 전체의 서사구조 및 의미론적 조응을 위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그간의 대하소설의 인물 연구가 주로 ‘성인’ 위주로 진행되었던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하소설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에 주목하였다. 그 중 ‘서사문법적 역할’과 관련하여 아동의 존재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대하소설 속 아동은 1) 그 어리숙함과 호기심 그리고 장난스러움으로 인해 어른들 간의 숨겨진 사건을 폭로하는 ‘정보의 제공자’ 혹은 새로운 사건을 창출하는 ‘사건의 매개자’로서, 2) 그 유약함으로 인해 갈등의 참상에 가장 쉽게 노출됨으로써 어른들의 갈등의 실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갈등의 상처의 바로미터’로서, 3) 그 천진함으로 인해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혹은 어른들 간의 갈등을 일소하는 ‘갈등 해소의 윤희유’로서, 4) 그 순수함 혹은 숙성함으로 인해 어른들이 보지 못하던 사건의 본질을 간파하거나 사건 해결의 열쇠를 제공하는 ‘사건 해결사’로서 자리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거울’과 같은 존재로, 작품의 가장 밑바닥에서 갈등의 참상을 투영하고 사건의 본질을 되비추는 인물군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존재는 대하소설에서 노인층, 청장년층뿐만 아니라 아동층에 이르는 연령상의 다층적 구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왕실의 최상층, 사대부가의 양반층, 시동·시녀 등의 하층을 아우르는 계층상의 다층적 구도와 더불어 대하소설의 총체성을 구현하는 데 일조한다. 또한, 한 개인의 일

생을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히 조명하여 그 성격 형성 및 성장 과정을 살펴봐주게 함으로써 한 개인의 총체적인 삶의 구현에도 이바지한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아동의 존재는 작품 전체의 구조 및 의미론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순수 아동문학의 조명도 중요하지만 성인문학 속에 자리한 아동의 존재에 대한 조명도 중요한데, 대하소설 속 아동은 성인문학 속 아동의 형상의 틀을 공고히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여러 작품들을 통해 대하소설 속 아동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서사문법적 측면과 관련하여 대하소설 속 아동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차후로 생활문화적 측면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을 대상으로 아동에 관한 논의가 더욱 폭넓고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류점숙,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중·문, 1998, 1~272면.  
신현재 외, 『아동문학의 이해』, 박이정, 2009, 1~462면.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 아동의 발견, 그 이후의 문학』, 소명출판, 2009, 1~326면.  
최기숙, 『조선시대 어린이 인문학-조선 지식인이 그린 어린이 문화지도』, 열린어린이, 2013, 1~303면.  
마리아 니콜라예바, 『용의 아이들-아동 문학 이론의 새로운 지평』(김서정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8, 1~321면.  
마리아 니콜라예바,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조희숙 외 옮김), 교문사, 2009, 1~384면.  
사빈 델쉬오르 보네, 『거울의 역사』(윤진 옮김), 에코리브르, 2001, 1~351면.  
필립 아리에스, 『아동의 탄생』(문지영 옮김), 새물결, 2003, 1~703면.

### 2. 논문

- 박미선, 『조선전기 ‘아동’의 사회적 인식-아동범죄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5, 1~57면.  
백혜리, 『묵재일기(默齋日記)에 나타난 조선 중기 아동의 생활』, 『유아교육연구』 24권 제 5호, 2004, 63~99면.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69~100면.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현재성-TV드라마와의 비교를 통해서』, 『개신어문연구』 31, 개신어문학회, 2010, 119~146면.  
송성욱, 『고전소설과 TV드라마-TV드라마의 한국적 아이콘 창출을 위한 시론』,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91~108면.  
이병기, 『조선어문학명저해제』, 『문장』 2, 1940, 문장사, 215~231면.  
이지하, 『여성주체적 소설과 모성이테올로기의 파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137~168면.  
정병설, 『고소설과 텔레비전드라마의 비교』,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221~246면.

조광국, 「고전대하소설과의 연계성을 통해 본 TV드라마의 서사 전략과 주제-접사론 구성을 지닌 <며느리전성시대>와 <황금신부>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가을호 제31권 제3호(통권 11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389~411면.

최혜진, 「조선중기 사족의 아동에 대한 인식과 교육-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眉巖日記)』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53면.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1~93면.

## The Role and Meaning of 'Child' in River Novels

Han, gil-yeon

This thesis posed a problem about that many studies on characters of river novels centrally focused on 'adults' and paid attention to 'children' that takes a share in river novels and supposed to examine the presence aspect and the meaning of existence of them. The existence of children in river novels takes important position in a regard of narrative grammar by informing hidden facts and renewing the mood and grasping the truth of affairs and so on. Furthermore they ensure a closely correspondent structure between scenes by forming the basis of foreshadow or reversal.

The children in river novels are meaningful by themselves, and besides they are significant in a regard that they play roles of reflecting the truth of conflicts between adults on broad viewpoints. The children in river novels are seated in the position as follows. 1) 'informants' who reveal hidden affairs between adults by virtue of their naivety, curiosity and playfulness or 'mediators' who create new affairs. 2) 'barometers' those show how dangerous the truth of conflicts between adults by being exposed to horrors of the conflict most easily from their weakness. 3) 'moodmakers' who change the mood pleasantly from their innocence or 'lubricant' who clean out the conflicts between adults. 4) 'troubleshooters' who penetrate the essence of affairs or afford a clue to the solution of the problem that adults can not see. Children are characters like 'mirror' who reflect the horrible scene of conflicts and illuminate the essence of incidents on the lowest layer of the novel.

These existence of children in river novels enable multilayered composition of various age groups, furthermore they help to realize the totality of river novels by embracing loyal families, noblemen, and lower class. And they contribute to give body to overall life of individuals by drawing character formation and growth

process in detail from their childhood. From these properties the existence of children have important position in respect of the whole structure and semantic concept.

Keywords : river novels, child, narrative grammar, conlict, affairs, totality

접수일자: 2013. 8. 31 심사기간: 2013. 8. 31~2013. 11. 20 게재결정: 2013. 11. 20
---